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8월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4.5%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8%).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1%).

◆ 2022년 8월 소비는 전월대비 4.3%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8%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2%), 승용차 등 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2.2%)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4.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2.3%).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9%)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1.8%)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8.8%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1.8%)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5.0%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4.0%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8월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7월p	8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0.5	-0.3(3.8)	-0.3(4.5)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0.9	-1.3(1.5)	-1.8(1.0)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1.2	-1.6(1.4)	-1.6(0.8)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1.6	-2.9(1.7)	5.0(7.5)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0.4	0.2(4.6)	1.5(7.1)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0.1	-0.4(-1.9)	4.3(2.3)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0.8	-3.5(-2.2)	8.8(11.8)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4	-0.1(5.7)	0.3(5.6)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9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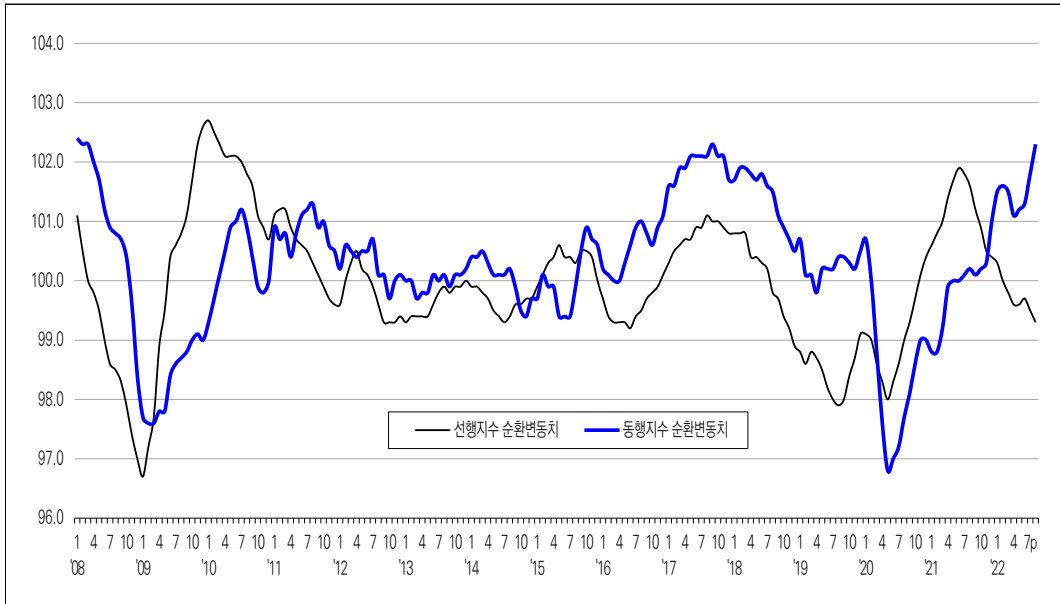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함(전년동월대비 5.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1.4%), 식료품·비주류음료(1.4%), 음식·숙박(0.1%), 통신(0.4%), 기타 상품·서비스(0.3%)는 상승, 교육, 의류·신발은 변동 없으며, 교통(-1.4%), 오락·문화(-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보건(-0.2%), 주류·담배(-0.2%)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0%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함.

◆ 2022년 8월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7%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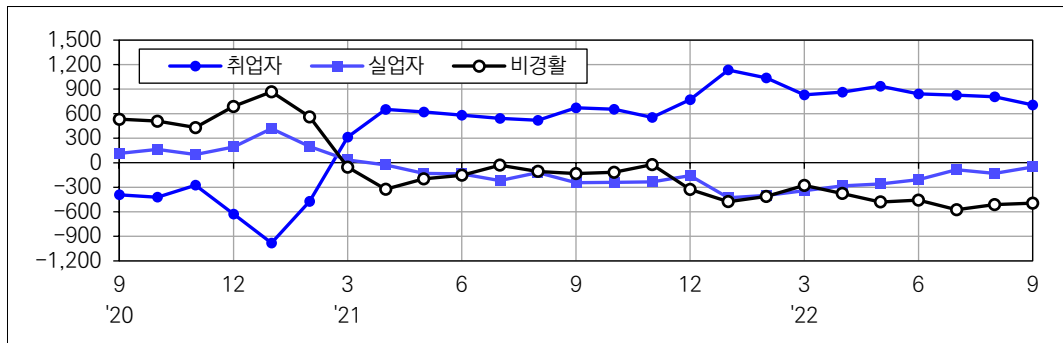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2년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0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2만 2천 명 감소).

- (산업별) 9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됨. 서비스업은 대면서비스업인 음식숙박 및 예술스포츠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운수창고 및 교육서비스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9월은 20대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20대와 30대에서 실업자가 증가로 전환됨. 20대 취업자는 운수창고 및 건설업에서 감소로 전환됨. 50대는 도소매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운수창고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9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상용직은 도소매 및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9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로 전환(8월 -2만 4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1만 3천 명 증가함.
- (실업자) 9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8월 -12만 9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9만 6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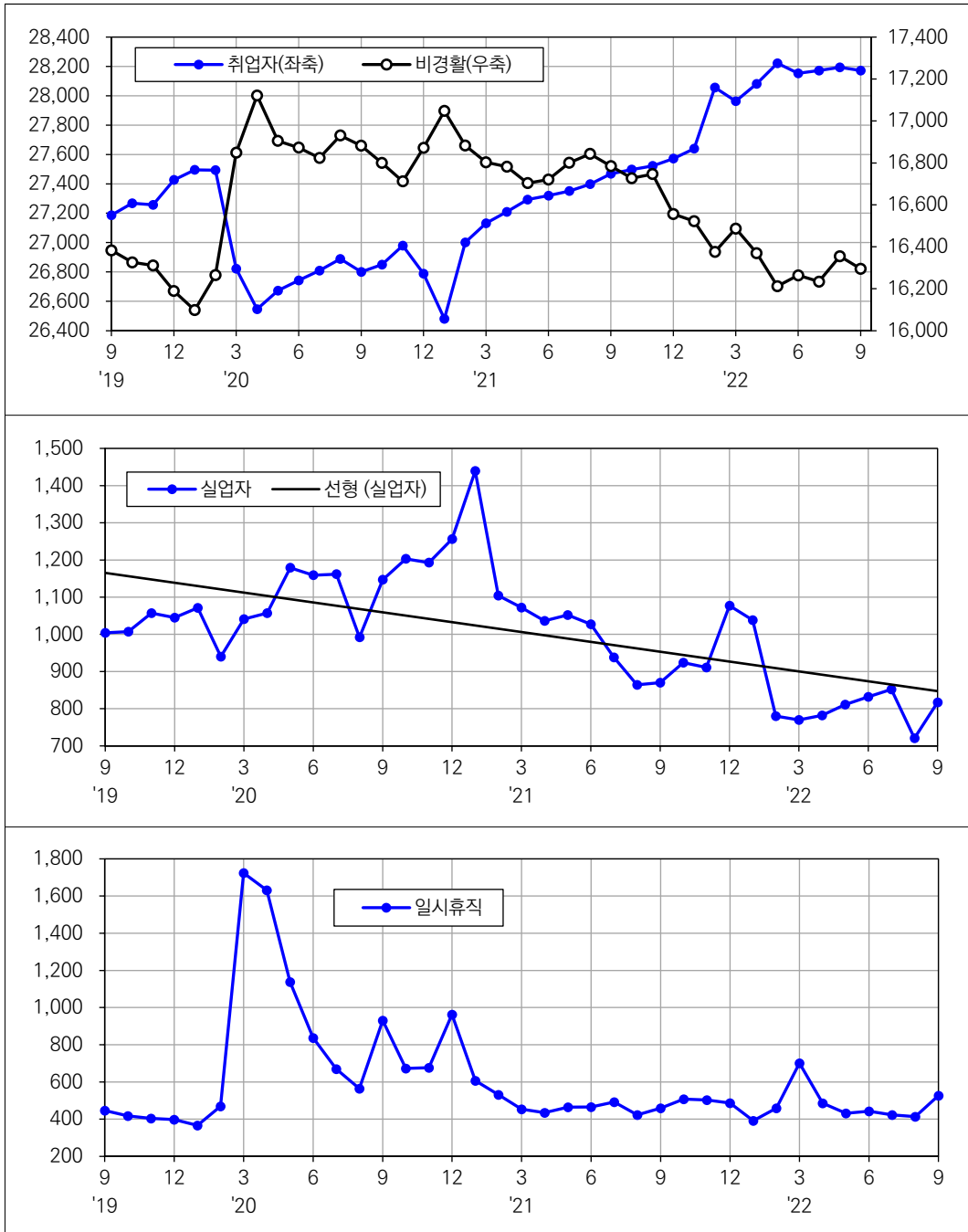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9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주로 2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20대와 30대에서 증가로 전환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운수창고, 건설, 예술여가, 교육, 보건복지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거나 증가폭이 축소됨. 음식숙박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50대는 도소매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운수창고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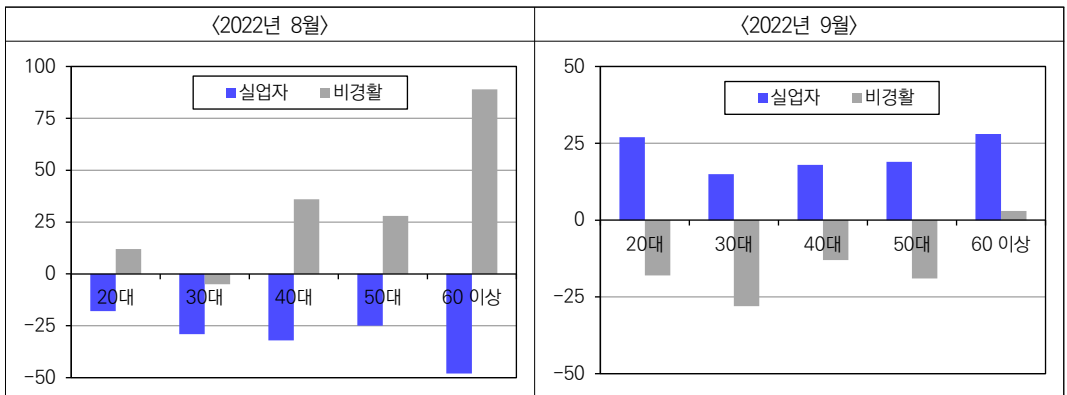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4	16	-4	(-11)	95	65	20	(-26)	62	98	91	(8)
실업자	0	-3	-6	(0)	-13	-11	41	(27)	6	-13	5	(15)
비경황	-59	-68	-40	(12)	-239	-209	-218	(-18)	-194	-206	-214	(-28)
실업률	0.2	-1.9	-3.2	(0.4)	-0.5	-0.4	0.9	(0.7)	0.0	-0.2	0.1	(0.3)
고용률	0.0	0.9	0.0	(-0.5)	2.9	2.5	1.8	(-0.2)	2.2	2.7	2.7	(0.2)
	40대				50대				60세 이상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1	-8	-17	(-15)	194	182	166	(0)	479	454	451	(13)
실업자	-9	-16	-10	(18)	-38	-38	-47	(19)	-31	-48	-36	(28)
비경황	-65	-56	-58	(-13)	-113	-107	-87	(-19)	95	135	123	(3)
실업률	-0.1	-0.2	-0.1	(0.3)	-0.7	-0.6	-0.7	(0.2)	-0.7	-0.9	-0.8	(0.4)
고용률	0.7	0.6	0.6	(-0.1)	1.8	1.8	1.7	(0.0)	1.8	1.6	1.6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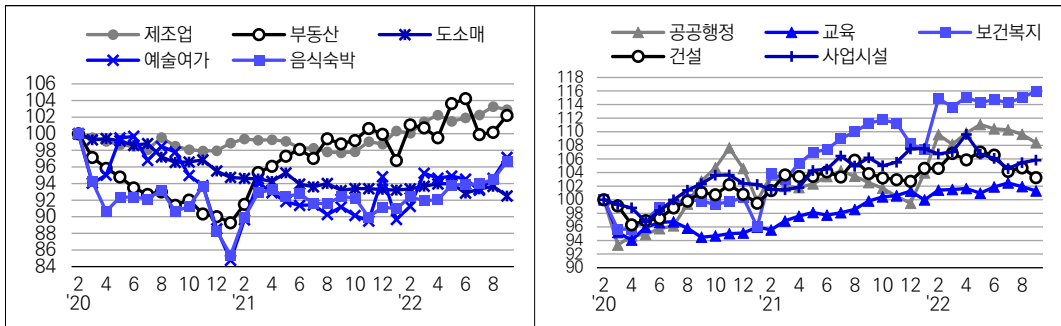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도소매, 공공행정, 건설, 교육이 감소함. 제조업, 사업시설은 정체된 반면 부동산, 예술여가, 음식숙박, 보건복지는 개선됨.
-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93	90	84	9	2	-8	3	0.2
광업	-3	-6	-4	-1	-2	1	-2	-24.7
제조업	176	240	227	15	45	-16	44	1.0
전기·가스·증기	16	12	12	6	-1	5	11	14.2
수도·원료재생	-29	-26	-32	1	0	-3	-2	-1.4
건설업	16	-22	-12	-49	11	-29	-67	-3.1
도매 및 소매업	-10	-14	-24	18	11	-41	-12	-0.4
운수 및 창고업	83	75	26	-15	-22	-15	-52	-3.1
숙박 및 음식점업	54	67	94	3	12	50	65	3.0
정보통신업	95	72	62	1	-2	2	1	0.1
금융 및 보험업	-21	-12	-24	24	1	-18	7	1.0
부동산업	16	4	19	-24	2	11	-11	-1.9
전문·과학·기술	86	80	65	29	-9	-3	18	1.4
사업시설관리지원	-25	6	-5	-20	12	5	-4	-0.3
공공행정·사회보장	68	71	69	-2	-7	-14	-23	-1.9
교육서비스업	84	62	27	11	-10	-12	-11	-0.6
보건 및 사회복지	130	123	117	-11	17	24	30	1.1
예술·스포츠·여가	9	23	31	-7	7	13	14	2.8
협회·단체·수리·기타	-23	-39	-25	-1	-10	17	6	0.5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4	-4	-2	5	-5	4	4	4.7
국제 및 외국기관	4	5	3	3	1	-1	3	2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9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도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운수창고, 금융보험 및 교육서비스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운수창고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로 전환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895	907	816	80	13	-18	74	0.5
임시직	-52	-78	-120	13	-9	-4	1	0.0
일용직	-77	-97	-114	-26	24	-56	-58	-5.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8	53	96	-39	-11	38	-13	-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9	88	87	34	21	-9	46	1.1
무급가족종사자	-67	-65	-59	-18	-7	-7	-32	-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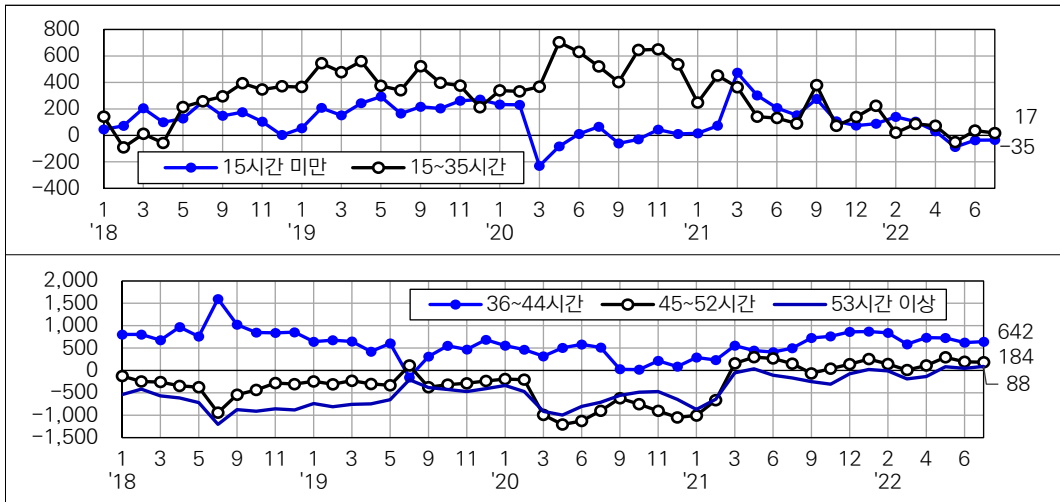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농림어업	-1	1	1	5	1	1	-2	-10	-9	8	7	-3	74	84	88
제조업	208	240	233	14	33	24	-14	-10	-20	19	19	26	-29	-29	-29
건설업	61	31	23	-2	31	17	-33	-63	-54	10	11	20	-8	-18	-6
도소매	87	101	69	-22	-42	-16	-4	-10	-14	-4	5	23	-31	-31	-45
운수창고	20	22	4	8	-4	-22	-2	6	-3	11	4	8	46	45	40
음식숙박	47	69	72	36	21	29	-10	-2	2	0	4	16	-21	-23	-28
정보통신	92	80	65	-12	-10	-8	1	-5	-5	1	0	-2	12	6	11
금융보험	-7	-24	-17	-20	-1	-18	2	3	3	3	5	4	1	5	3
부동산	4	-4	-5	10	3	11	0	-1	0	5	4	3	-4	0	10
전문과학기술	105	87	65	-32	-27	-15	-3	1	-1	9	4	6	9	17	11
사업관리지원	-20	-8	-19	1	2	4	-20	-6	-4	9	-1	1	3	15	11
공공행정	100	95	109	-32	-23	-36	0	-1	-4	0	0	0	0	0	0
교육서비스	70	61	49	-9	-28	-47	1	6	6	7	1	3	17	28	22
보건복지	120	158	162	3	-36	-43	2	0	1	0	-1	-3	6	4	2
예술스포츠	-5	-10	-4	-9	8	6	1	-2	1	3	0	3	16	24	22
협회단체	34	28	28	1	-8	-5	0	0	-6	-4	-11	-7	-44	-42	-32
가구 내 고용	0	-2	-2	-2	-3	-1	5	0	-3	0	0	0	1	1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9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시간 감소함.
 - 이는 2022년 9월 조사기간 중에 대체공휴일(추석)이 포함된 영향 때문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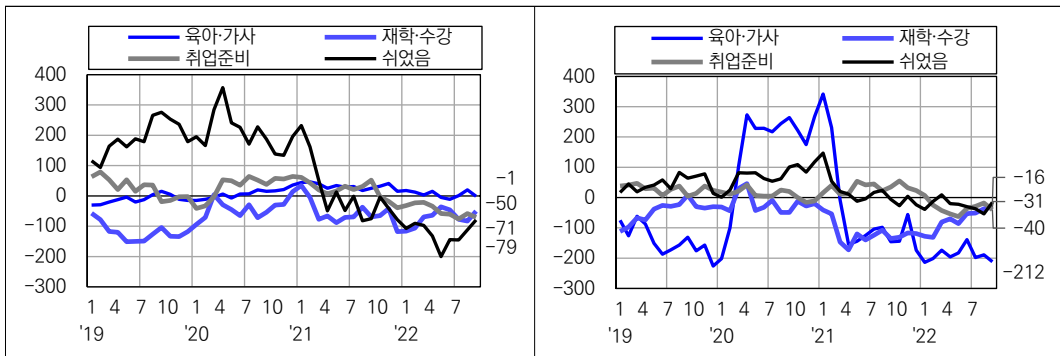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9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9만 5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8월 -51만 2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21만 4천 명으로 재학·수강 및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28만 1천 명으로 육아·가사 및 취업준비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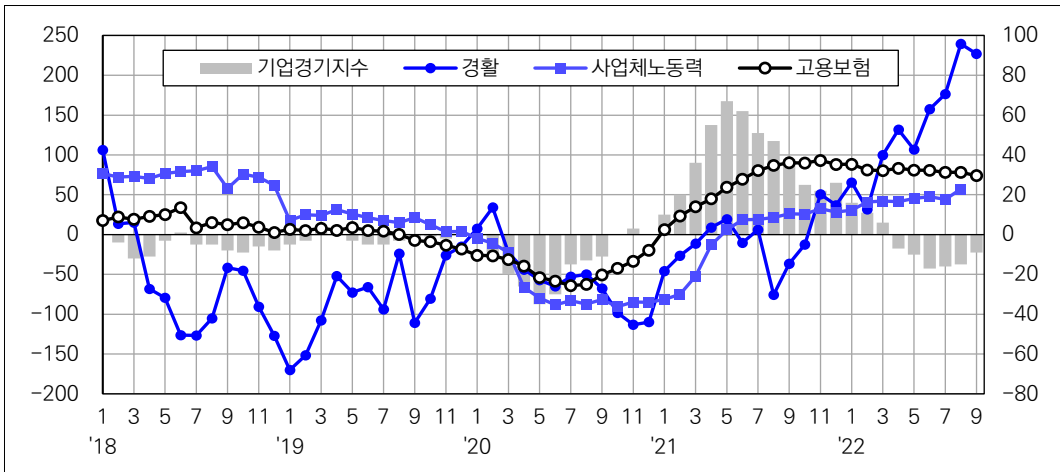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지속

○ 2022년 9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2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주로 1차금융, 전자통신, 의료정밀, 식료품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7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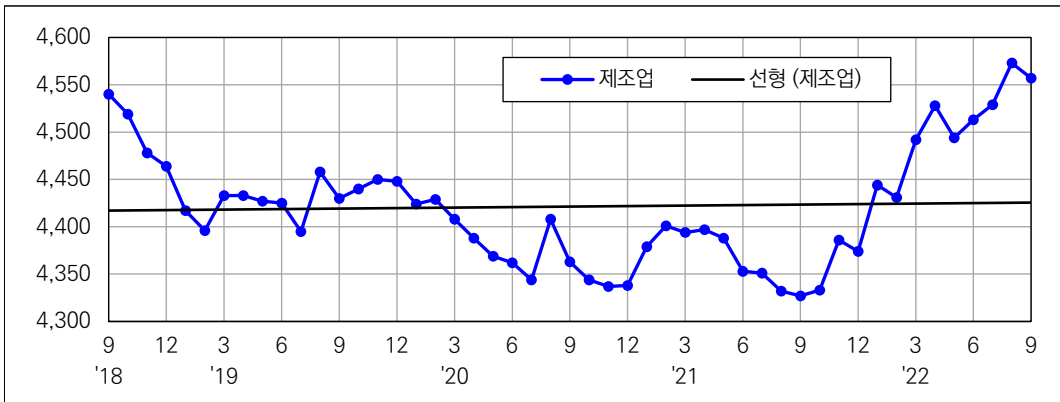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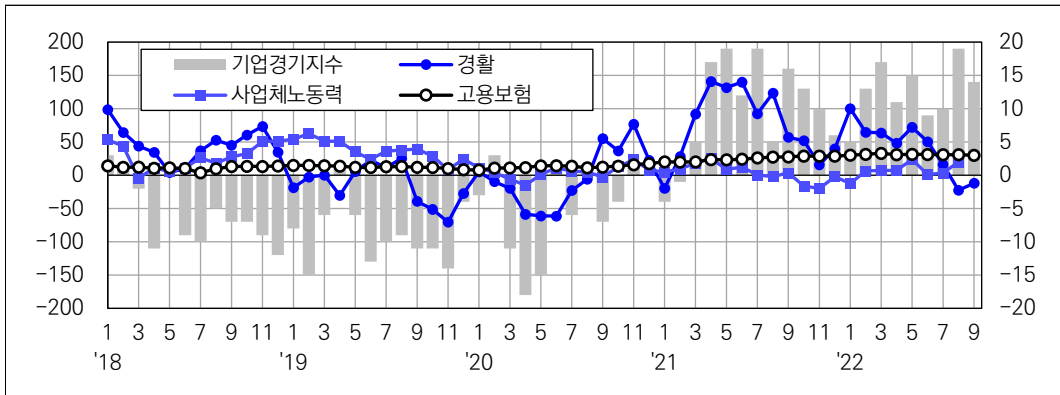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9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변동 없는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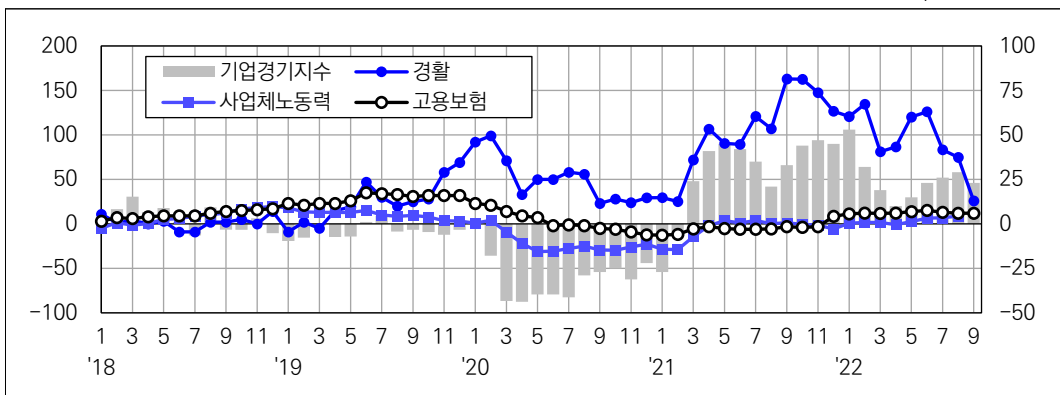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9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9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그 외 지표는 추세를 유지함.
 - (음식숙박)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그 외 지표는 증가세를 유지함.
 - (교육서비스) 모든 고용지표의 증가폭 축소가 이어짐.
 - (예술스포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그 외 지표는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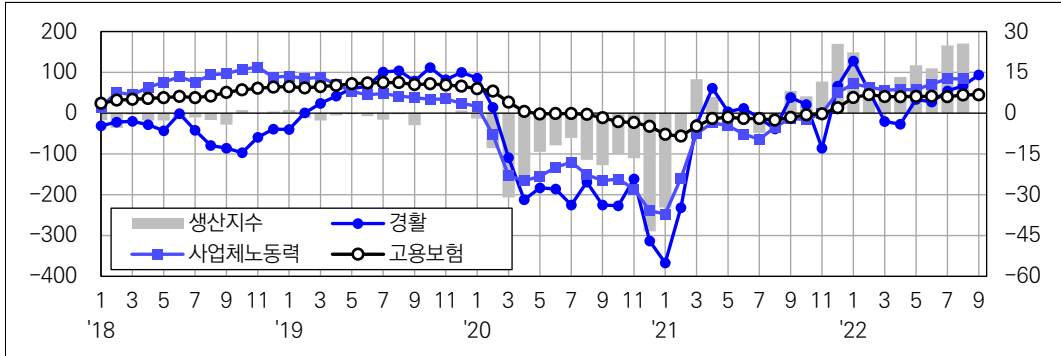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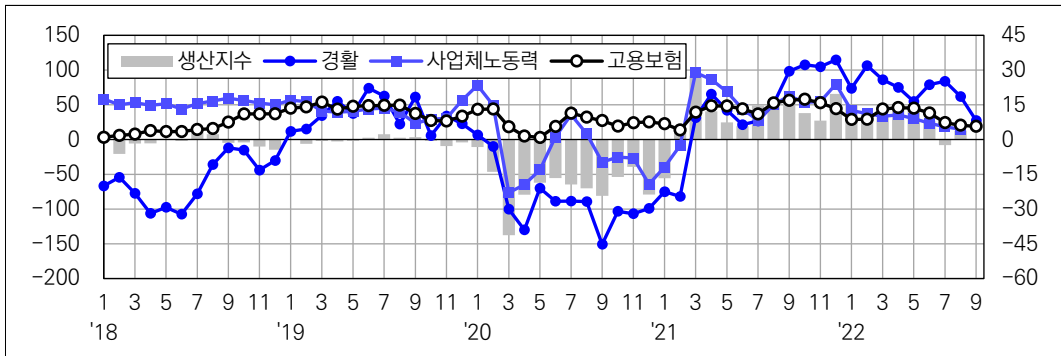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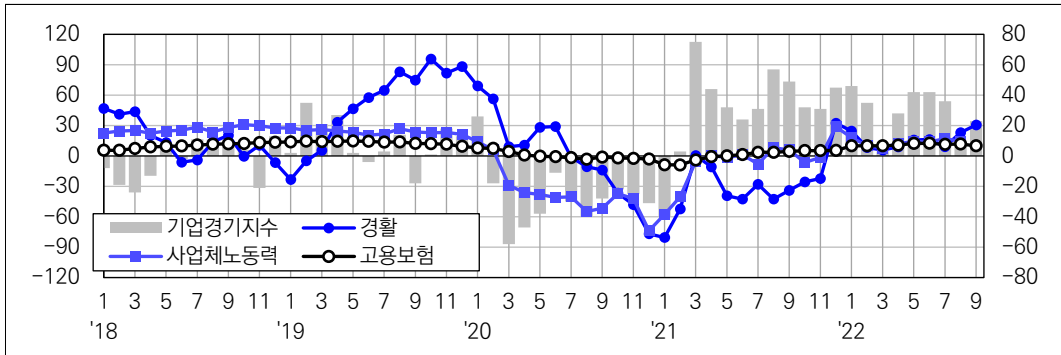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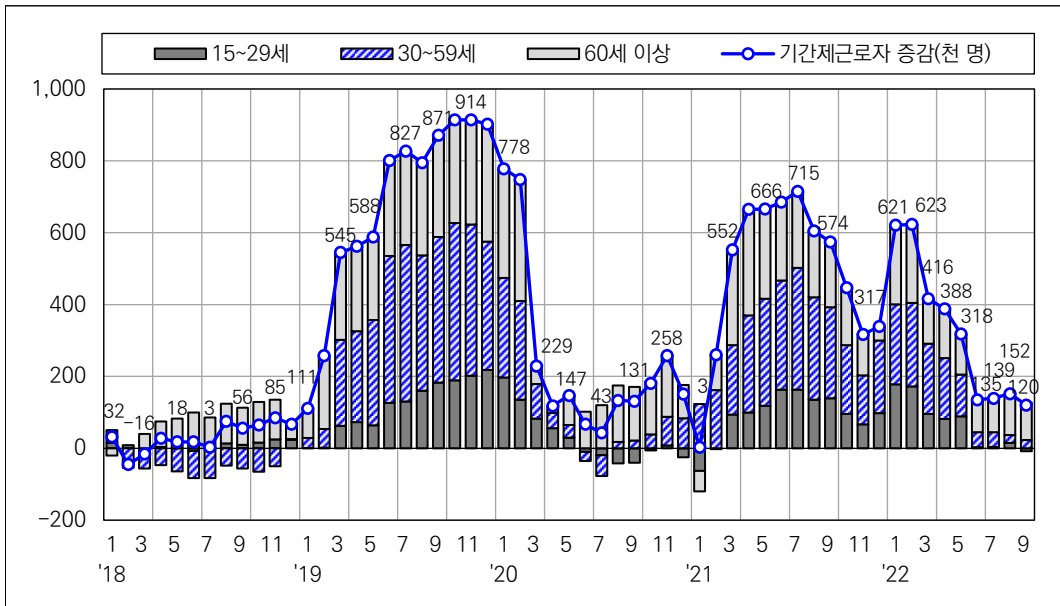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9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중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 2022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 9천 원(4.0%)임.
 - 2022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5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5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정액급여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의 둔화폭이 컸던 영향으로 보임.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금융 및 보험업(-13.5%), 정보통신업(-3.8%), 제조업(-1.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7월	7월	1~7월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656 (4.5)	3,769 (6.9)	3,857 (5.5)	3,919 (4.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3,854 (4.6)	3,984 (7.1)	4,077 (5.8)	4,153 (4.3)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161 (3.2)	3,193 (3.6)	3,293 (4.2)	3,334 (4.4)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4 (4.8)	201 (5.2)	216 (6.0)	215 (6.8)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489 (14.9)	590 (32.1)	568 (16.2)	604 (2.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690 (4.3)	1,713 (5.5)	1,738 (2.8)	1,759 (2.7)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2.3 (2.1)	102.3 (2.6)	108.7 (4.9)	108.7 (6.3)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4	4.1	0.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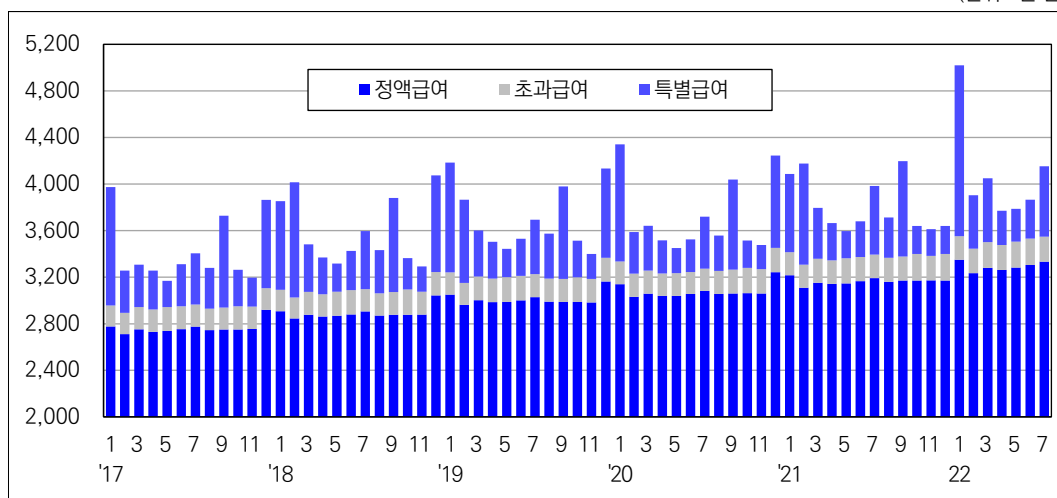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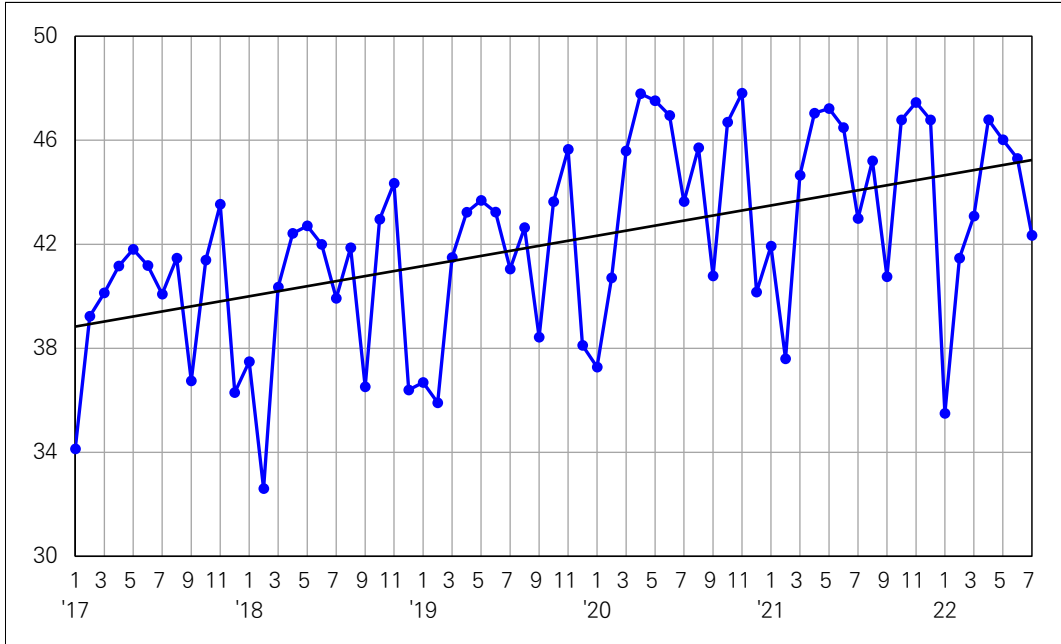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둔화

- 2022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0%, 3.6% 증가함.
 - 중소기업(1~299인)·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3.8% 증가함.
 - 특히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특별급여가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9.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1%, 5.5% 증가함.
- 2022년 1~7월 평균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5%, 8.3%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폭 확대됨.
 - 전반적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280 (3.7)	3,350 (4.6)	3,427 (4.5)	3,485 (4.0)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468 (3.8)	3,552 (4.8)	3,633 (4.8)	3,707 (4.3)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94 (3.2)	3,028 (3.5)	3,117 (4.1)	3,160 (4.4)
	초과급여	171 (-2.4)	176 (2.9)	173 (4.3)	171 (4.1)	183 (6.0)	182 (6.3)
	특별급여	292 (-9.4)	322 (10.4)	300 (10.8)	354 (18.6)	332 (10.6)	365 (3.2)
	비상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63 (3.9)	1,664 (3.7)	1,702 (2.4)	1,698 (2.1)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563 (6.3)	5,896 (13.5)	6,026 (8.3)	6,108 (3.6)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5,662 (6.3)	6,000 (13.6)	6,152 (8.6)	6,229 (3.8)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41 (2.9)	3,964 (3.8)	4,113 (4.3)	4,145 (4.6)
	초과급여	340 (1.4)	357 (5.1)	350 (5.3)	344 (7.4)	371 (5.8)	371 (7.8)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371 (18.1)	1,692 (47.7)	1,669 (21.8)	1,714 (1.3)
	비상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199 (9.0)	2,587 (29.0)	2,329 (5.9)	2,729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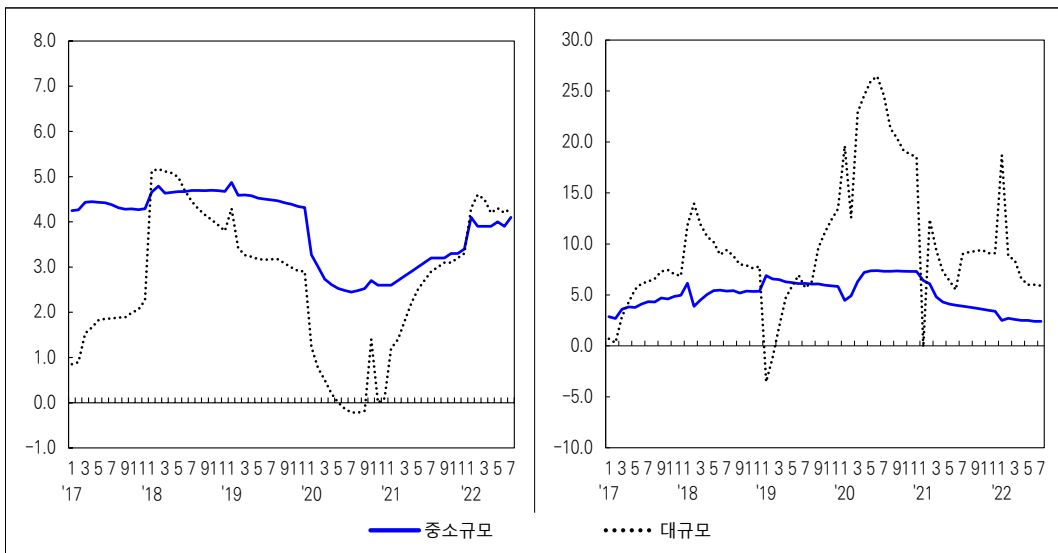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7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1%), 부동산업(6.8%), 도매 및 소매업(6.1%) 부문으로 6~7%대의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금융 및 보험업(-1.8%)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0.6%)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2022년 7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3만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47만 5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77만 6천 원) 순인 가운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3만 9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3,527	3,689 (4.6)	3,656 (4.5)	3,769 (6.9)	3,857 (5.5)	3,919 (4.0)
광업	4,325	4,415 (2.1)	4,421 (1.9)	5,217 (6.3)	4,622 (4.5)	5,361 (2.7)
제조업	3,990	4,239 (6.2)	4,189 (6.3)	4,383 (10.8)	4,496 (7.3)	4,538 (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480 (0.8)	6,182 (-0.9)	6,641 (2.5)	6,475 (4.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3,945 (5.0)	3,890 (4.0)	4,040 (2.4)	4,033 (3.7)
건설업	3,032	3,106 (2.4)	3,072 (1.3)	3,071 (2.5)	3,202 (4.2)	3,206 (4.4)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516 (3.7)	3,595 (4.9)	3,717 (5.7)	3,815 (6.1)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3,712 (6.2)	4,284 (8.4)	3,927 (5.8)	4,515 (5.4)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1,883 (0.4)	1,903 (1.1)	1,984 (5.4)	2,039 (7.2)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4,847 (4.1)	4,668 (4.1)	5,041 (4.0)	4,841 (3.7)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7,058 (8.2)	6,753 (8.9)	7,463 (5.7)	6,630 (-1.8)
부동산업	2,848	2,954 (3.7)	2,939 (2.9)	2,941 (-5.2)	3,106 (5.7)	3,140 (6.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5,008 (4.2)	5,530 (13.7)	5,336 (6.6)	5,776 (4.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466 (3.3)	2,487 (4.4)	2,565 (4.0)	2,582 (3.8)
교육서비스업	3,366	3,355 (-0.3)	3,402 (-0.6)	3,545 (0.3)	3,470 (2.0)	3,661 (3.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2,980 (2.0)	3,007 (2.8)	3,096 (3.9)	3,125 (3.9)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2,963 (3.4)	3,152 (1.0)	3,034 (2.4)	3,133 (-0.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672 (5.7)	2,733 (5.9)	2,808 (5.1)	2,927 (7.1)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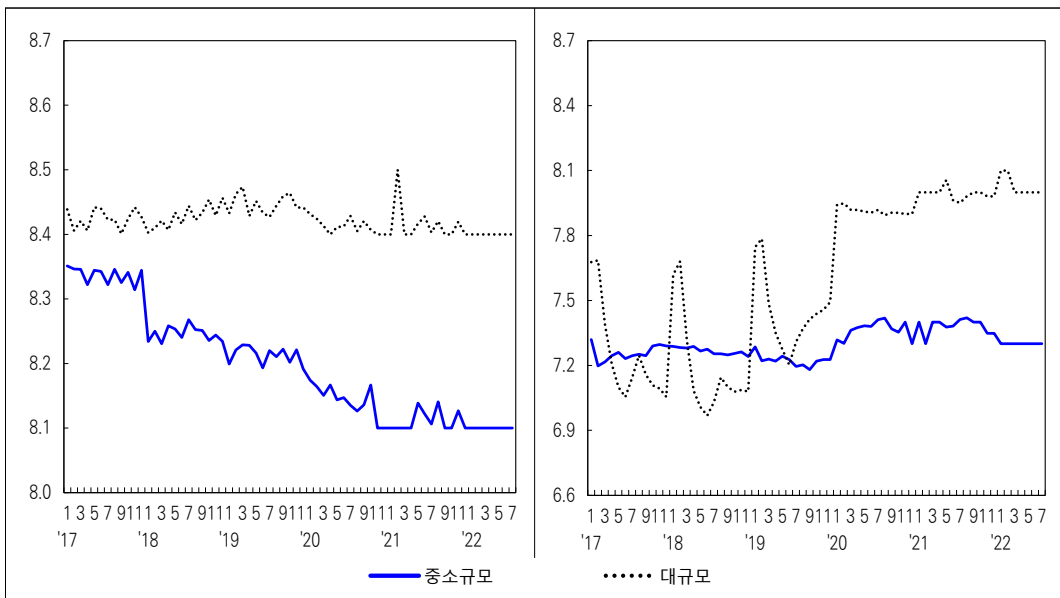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6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 2022년 7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9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감소함.
 -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7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가 1일 감소한 영향이 큼.
 -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1~7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7시간 감소함.
 - － 2022년 1~7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3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오미كرون)의 확진자 급증 등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61.1시간, 16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7시간, 6.4시간 감소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60.5(-0.3)	167.8(-2.7)	157.0(-2.2)	161.1(-4.0)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7.8(-0.4)	176.0(-2.9)	164.2(-2.1)	168.9(-4.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60.2(-0.4)	168.5(-3.0)	156.5(-2.3)	161.4(-4.2)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7(1.3)	7.5(0.0)	7.7(0.0)	7.5(0.0)
	비상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7.1(1.6)	99.2(1.1)	96.5(-0.6)	97.8(-1.4)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3.7(-0.3)	171.0(-2.8)	159.0(-2.9)	164.6(-3.7)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4.7(-0.3)	172.1(-2.8)	160.2(-2.7)	165.8(-3.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3.8(-0.5)	161.5(-3.3)	149.2(-3.0)	155.2(-3.9)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0.9(1.9)	10.6(5.0)	11.0(0.9)	10.7(0.9)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8.8(1.7)	136.0(2.6)	124.3(-3.5)	130.4(-4.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7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2년 7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80.0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6.6시간), 제조업(174.5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5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160.6	160.7(0.1)	161.0(-0.3)	168.3(-2.8)	157.3(-2.3)	161.7(-3.9)
광업	181.2	179.9(-0.7)	181.3(0.6)	184.0(-3.3)	174.1(-4.0)	180.0(-2.2)
제조업	172.7	173.5(0.5)	174.7(0.9)	182.1(-1.1)	170.0(-2.7)	174.5(-4.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2.9(-0.7)	170.5(-2.0)	158.3(-2.8)	166.9(-2.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6.8(-0.2)	184.4(-2.7)	173.6(-1.8)	176.6(-4.2)
건설업	136.9	135.9(-0.7)	135.8(-1.8)	140.5(-3.4)	133.6(-1.6)	136.5(-2.8)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4.1(-0.4)	171.4(-3.3)	160.8(-2.0)	164.9(-3.8)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60.0(0.1)	167.5(-1.2)	158.6(-0.9)	163.2(-2.6)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7.1(-2.3)	154.1(-4.0)	145.1(-1.4)	149.8(-2.8)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4.5(-0.5)	173.1(-3.5)	161.0(-2.1)	166.2(-4.0)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62.9(-0.7)	170.7(-4.5)	157.8(-3.1)	162.7(-4.7)
부동산업	173.2	171.8(-0.8)	171.8(-1.2)	178.5(-4.0)	167.6(-2.4)	172.5(-3.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2.5(-0.9)	170.7(-4.2)	158.7(-2.3)	164.0(-3.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62.4(-0.1)	169.3(-2.2)	158.4(-2.5)	162.2(-4.2)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7.1(-0.1)	145.0(-6.0)	134.3(-2.0)	139.3(-3.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8.1(-0.8)	165.7(-3.0)	153.8(-2.7)	158.0(-4.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2.1(0.7)	161.8(-1.2)	149.4(-1.8)	153.1(-5.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2.2(1.0)	170.3(-2.1)	158.8(-2.1)	162.9(-4.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1건
 - －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4건)보다 3건 적은 수치임.

- 2022년 9월 조정성립률 0%
 - － 9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9.1%보다 9.1% 적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9	21	16	0	0	0	14	0	14	0	2	11	0.0%
2021. 9	24	24	2	2	0	20	2	18	1	1	13	9.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8건
 - － 9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4건)보다 4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9건임.

〈표 2〉 2021년, 2022년 6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9.	4	5	4	0	1	5
2021. 9.	8	9	8	0	1	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57건
 - － 9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67건)보다 10건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3%(5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7%(157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9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9	157	213	50	6	116	4	20	17	465
2021. 9	167	194	55	7	96	10	15	11	51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5건
 - － 9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7%(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3%(11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9	5	15	3	1	11	0	0	0	6
2021. 9	7	9	3	0	3	3	0	0	1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²⁾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444건
 - －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595건)보다 151건 적은 수치임.
 - － 5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521건)보다 151건 적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8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1. 8	595	521	107	190	78	146
2022. 8	444	370	88	93	54	13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중소 병·의원 노동자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9월 29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 5개 직종(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5,044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조사 결과,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은 일주일 평균 5.5일 출근하고, 약 43시간 일했음. 하루 평균 식사 포함 휴게시간은 49.4분이었음.
- 일주일 중 끼니를 굶는 경우는 평균 1.6회, 퇴근 이후 혹은 휴일에 SNS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월평균 6.3회였음.
- 이 외에도 △면허·자격 이외의 부당 업무 지시 경험(39%) △직장 내 폭언(25.1%), 직장 내 괴롭힘(18%), 환자·보호자 폭언폭행(47.5%), 환자·보호자 성희롱(17%) 경험 △불임난임휴가(2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9.4%), 태아검진시간(32.5%), 수유시간(19.3%), 생리휴가(16.5%) 등 모성보호 관련법 미보장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관련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국립대병원 간호사 60%, 2년 이내 퇴사

- 10월 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사 비율(전체 퇴사자 대비 입사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2022년 9월 기준 41.1%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었음.
- 2년 이내 퇴사율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58.8%, 2021년 57.2%, 2022년 9월까지 60%로 나타났음.
- 이 중 칠곡 경북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은 3년간 2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각각 평균 79.3%, 70.6%였음.
- 국립대병원 의사 퇴사 현황도 비슷했는데, 국립대병원 의사 퇴사자 가운데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까지 33.3%였음.
- 강원대병원·전남대병원은 3년간 2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각각 평균 81.7%, 83.7%였

음. 경북대병원(분원 포함)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입사 2년 이내 퇴사한 경우가 100%였음.

◆ 금융노사, 임단협 잠정 타결

- 10월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제6차 대대표교섭에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음.
- 금융노조는 임금 5.2% 인상,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철회 등 34개 교섭안을 사측에 제시했음.
- 사측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음. 제6차 대대표교섭에서 양측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음.
- 임금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되,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음.
- 점포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음.
-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협 조항을 신설했으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음.
-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남성노동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의 조항이 추가됐음.

◆ 학교 급식 노동자 100명 중 1명 ‘폐암 의심’

- 10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노동자 5,979명 중 61명에게서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음.
- 교육부에 중간 검진 결과를 제출한 전국 6개 교육청에서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검진 대상 1만 3,447명 중 5,979명의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음. 이 중 61명(1.02%)은 ‘폐암 의심(42명)’이나 ‘매우 의심(19명)’ 판정을 받았음.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의 여성 폐암 발병률인 10만 명당 37.4명(0.037%)의 28배 정도 되는 높은 수치임.
- 이 외에도 암은 아니지만 폐결절 등 각종 ‘이상소견’이 나온 사람도 1,653명으로 전체 검사

- 자의 27.6%나 되었음. 폐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 정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2022년 처음으로 폐암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음. 55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이 진행 중임.

◆ 학교 급식조리사 산재 한 해 만에 60% 급증

- 10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조리(실무)사의 산재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58건이던 산재는 2021년 1,206건으로 급증했음.
- 산재 형태는 넘어짐(327건)이 제일 많았으며, 화상(307건), 근골격계질환(156건), 끼임(83건), 부딪힘(74건)이 뒤를 이었음.
- 시도별 산재 현황을 보면 경기(37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92건), 서울(87건), 경남(75건), 부산(71건), 전북(68건), 제주(68건), 강원(62건), 인천(53건), 울산(49건), 전남(49건), 충북(48건), 경북(42건), 대구(39건), 대전(34건), 광주(33건), 세종(16건) 순이었음.

◆ 5년간 4개 항만서 사고사망 9건, 중상 60건 발생

- 10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개 항만에서 작업 중 사망이 9건, 중상은 6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7~21년 5년간 4개 항만에서 사망 9건과 중상 60건, 경상 163건 등 모두 23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전체 안전사고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음. 2017년 43건, 2018년 46건에서 2019년 38건으로 줄었으나 2020년 46건, 2021년 59건으로 다시 늘어났음.
- 같은 기간 사망과 중상은 감소세를 보였음. 사망(9건)은 2018년(6건)과 2019년(3건)에 집중 발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올해 2분기 현재 인천 항만에서 사망 2건이 발생했음.
- 항만별로 보면 부산 항만에서 사망 7건, 경상 86건을 포함해 안전사고(102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 중상은 인천 항만에서 3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음.

〈표 6〉 항만 안전사고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017~21년)	2022년 2분기
사망	0	6	3	0	0	9	2
중상	17	15	11	13	4	60	2
경상	26	25	24	33	55	163	25
합계	43	46	38	46	59	232	29

자료 : 신정훈 의원실.

◆ 산업단지 중소기업 중대사고 대기업의 1.7배

-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단 내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산단에서 28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음. 이 기간 발생한 중대사고는 중소기업이 175건, 대기업이 106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약 1.7배나 됨.
-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화재(93건)로 53.1%에 달했음. 그 외 노동자 사상자 등의 산업재해(42건), 가스·화학물질사고(20건), 폭발(20건) 등이 뒤를 이었음.
- 중소기업의 중대사고 상당수는 노후산단에서 발생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중대사고 중 97%(170건)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 24곳에서 발생했음.
- 노후산단 중소기업 중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은 인천 남동산업단지로 총 25건이 발생했음.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21건, 울산미포·경기 시화산업단지 14건, 여수국가산단 11건 등으로 나타났음.

◆ 택배노동자 코로나19 이후 산재 5배로 증가

- 10월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월평균 승인 건수는 8.8건으로 10건에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3.3건 △2021년 34.8건으로 꺾음. 올해는 상반기 월평균 승인 건수가 43건으로 2019년의 약 5배로 늘어났음.
- 산재 신청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 2019년 택배노동자들의 산재 월평균 신청 건수는 9.9건으로 한 달에 10건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14.8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 38.2건 △2022년(상반기) 43건으로 늘어났음.
- 산재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의 증가 때문으로 보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던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20년 33억 7,373만 박스로 전년(27억 8,980만 박스) 대비 21%가량 늘어났음. 이 같은 업무량 증가는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기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화

- 9월 27일 경기도는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밝히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음.
-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200개 노선 2,000여 대의 광역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지만, 시내버스는 대부분 준공영제에서 제외돼 있음(시내버스는 총 1,300개 노선에 7,5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음).
-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하고,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임.
-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됨.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됨.

◆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자 10년 전보다 줄어

- 9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명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이었음. 이는 2012년 1만 113명에서 773명(7.6%) 감소한 숫자임.
- 5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수급자가 늘었음. 같은 기간 5~99명 사업장은 1만 8,722명(103.7%), 100~299명 사업장은 8,765명(144.4%), 300명 이상 사업장은 1만 9,784명(66.3%) 증가했음.
-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은 특이한 정황을 보였음.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5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유일하게 여성 수급자가 줄어들었음.
-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일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음. 지난해 전체 남성 수급자 규모는 2만 7,251명임. 300명 이상 기업에서 1만 6,470명(60.4%)이 육아휴직을 했음.

◆ 5인 미만 사업장 · 비정규직 44%, 휴일도 근무

- 10월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44.5%로, 정규직(7.3%)의 6배를 넘었음.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의 44.2%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음. 반대로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에 그쳤음.
- 전체 노동자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22.2%)의 약 2배 수준이었음.
- 비정규직과 5인 미만 노동자는 유급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음.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음.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각각 46.1%, 44.0%였음.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10명 중 7명이 여성노동자

- 9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족돌봄비용 지급인원은 3만 2,573명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인원(2만 6,998명)보다 5,575명(20.7%)이나 더 많은 수치였음.
- 코로나19가 직격한 2020년에는 13만 9,662명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했음.
- 2020년 여성노동자는 8만 6,760명으로 전체의 62.1%였으나, 지난해는 1만 8,140명으로 67.2%를 차지했음. 2022년은 2만 2,727명으로 69.8%를 기록했음.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표 7〉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지급 현황(성별)

(단위: 명)

	계	남성	여성	여성노동자 비율
2020	139,622	52,834	86,760	62.1%
2021	26,998	8,834	18,140	67.2%
2022. 1~8월	32,573	9,707	22,727	69.8%

자료: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의사환자·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교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임. 노동자가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을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함.

◆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 10월 4일 고용노동부는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하였음.
- 손해소송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소송 및 가압류 사건임.
- 손해소송 현황은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해소송은 151건(73개소), 2,752.7억 원 청구, 그중 49건, 350.1억 원이 인용됨.
- 가압류 현황은 2009~2022년 8월까지 총 30건(7개소), 신청액 245.9억 원, 그중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률 70%임.
-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건(151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함.
-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 그중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이었음(전택, 공공연맹).
- 당사자는 대부분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나(54.1%),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25.5%).
(대우조선,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노조 상대로 제기하였고,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상대로 제기,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상대로 제기하였음)

〈표 8〉 손해배상소송 분포

	사건 수	진행사건				종결사건				청구액	인용액
		전심 결과		소계	소취하등	판결확정					
		기각	인용			기각	인용				
민주노총	계	142	22		11	120	63	21	36	2742.1억	349.6억
	금속	105	18		11	87	45	11	31	1,973.1억	347.9억
	공공운수	12				12	10		2	333.47억	0.8억
	기타	25	4			21	8	10	3	434.9억	0.9억
한국노총	7	2	1		5	3		2	3.4억	0.5억	
확인 안됨	2				2			2	7.2억		
합 계	151	24	1	11	127	66	23	38	2752.7억	350.1억	

자료 : 고용노동부.

- 주요사업장은 총 151건 중 상위 9개 기업(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청구액 2,227억 원, 인용액 327.8억 원)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